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 양
범민족통일음악회

1990. 10

평양등대사

범민족통일음악회

1990. 10

평양등대사

통일의 봄 불러오리라

1. 비바람이 불어도 눈바람이 불어도
   겨레의 소원을 안고 피는 꽃송이
   우리는 이 나라의 아들딸
   하나의 조선위해 피리라
   통일의 봄 불러오며

2. 북녘땅에 피여도 남녘땅에 피여도
   분렬의 아픔을 안고서 피는 꽃송이
   우리는 이 나라의 아들딸
   하나의 조선위해 피리라
   통일의 봄 불러오며

3. 이 한몸을 바치여 이 젊음을 바치여
   통일의 새날을 그리며 피는 꽃송이
   우리는 이 나라의 아들딸
   하나의 조선위해 피리라
   통일의 봄 불러오며

책 을 내 면 서

7천만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에 분단 45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에는 북과 남, 해외에서 온 수많은 예술단과 동포음악가들이 참가하였었다.

음악회에 참가한 동포음악가들은 북과 남, 해외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창작된 음악작품들과 민족애가 담긴 음악작품들 그리고 우리 나라 민요들과 해방전에 창작된 대중가요들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음악회를 훌륭하게 장식하였다.

동포음악가들은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민족분단 45년간의 비극속에서도 아름답고 풍만한 민족음악예술의 우수한 전통이 고수되고 민족의 얼이 피속에 맥맥히 흐르고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피줄을 이어온 북과 남, 해외의 동포음악가들이 비록 나라의 분렬로 근 반세기동안 서로 헤여져 살고있으나 조국은 하나이고 민족도 하나이며 음악도 하나이라는것을 내외에 다시금 힘있게 보여주었다.

참으로 범민족통일음악회는 음악으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성업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음악가들의 력사적인 첫 회합이였고 7천만 겨레의 통일 의지와 념원을 힘있게 과시한 통일애국운동의 새로운 첫 출발이였다.

혈육의 뜨거운 정이 굽이치고 통일의 열망이 세차게 끓어번지는 가운데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는 1990년대에 기어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성취하려는 겨레의 통일열망을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등대사는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범민족통일음악회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 력사적인 경사를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화첩을 묶어 세상에 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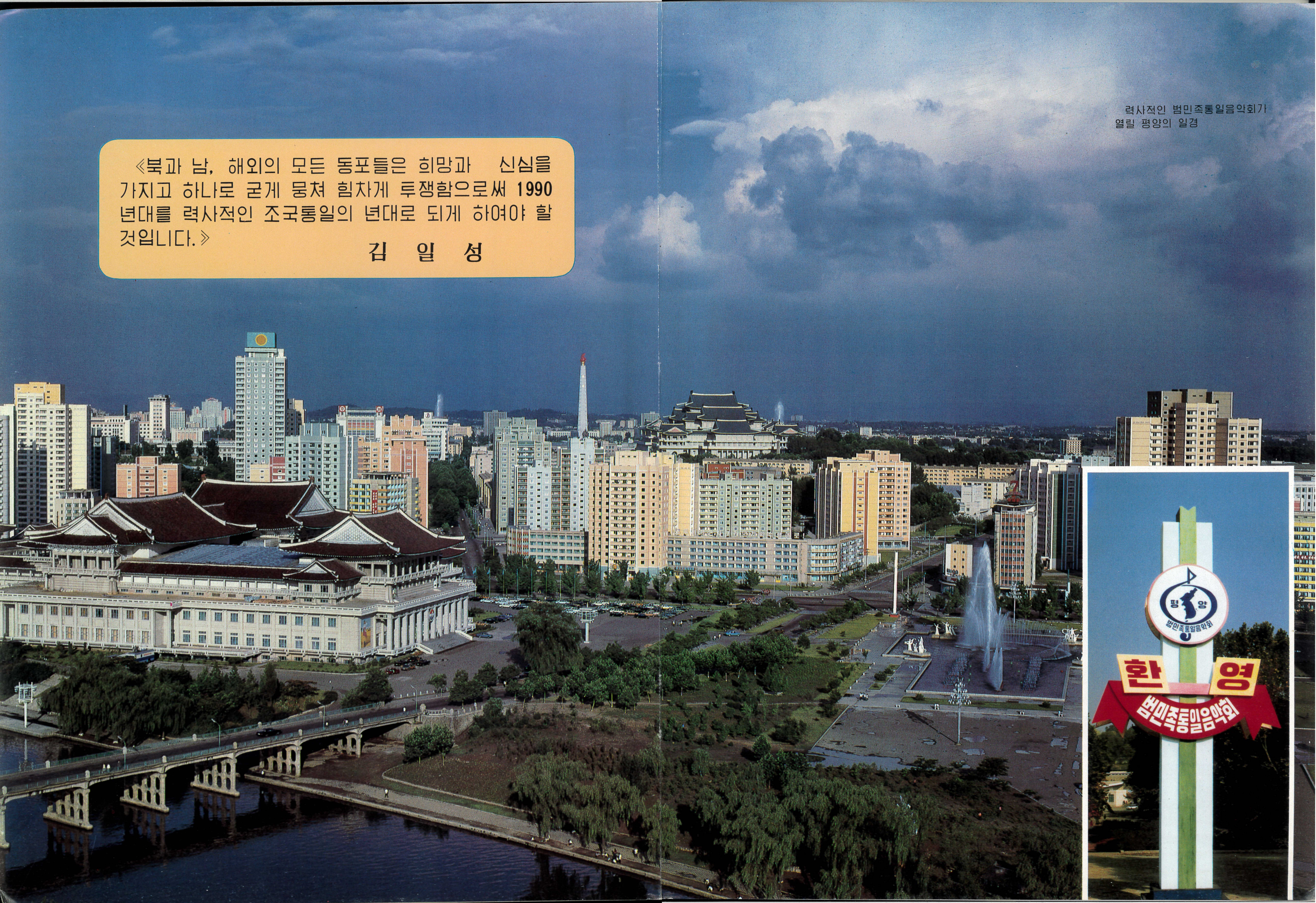
1990. 10. 30

평양등대사


민족의 기상을 안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의 해돋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1990년대를 력사적인 조국통일의 년대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일 성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열릴 평양의 일경

조국도 하나, 민족도 하나, 노래도 하나



2. 8문화회관 (6, 000석)



만수대예술극장



평양대극장 (1, 476석)

범민족통일음악회 공연장소



동평양대극장 (2, 000석)



청년중앙회관 (2, 500석)



봉화예술극장 (2,000석)



모란봉극장 (700석)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윤이상선생 평양에 도착 (10. 11)



비행장에서 도착성명을
발표하는 윤이상선생



평양에 도착한 윤이상선생일행



윤이상선생일행은 평양시 근로자들과 예술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열렬한 환영,
뜨거운 동포애의 정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이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분계선을 넘어온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을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열렬히 환영—



북의 예술인들과 개성시 근로자들이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북측 지역에 들어선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10. 14)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통일각으로 향하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



사랑하는 남편을 남쪽땅에 두고도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살아온 70고령의 할머니가 외손녀의 손목을 이끌고 개성역에 나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황병기 대표에게 기념품을 주었다.



⇨서로 끌어안고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고있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판문점에서)



⇨꽃다발을 안겨준 북의 예술인의 얼굴에도, 꽃다발을 받아안은 남의 예술인의 얼굴에도 만남의 기쁨이 한껏 어려있다.



⇨개성시 어린이들로부터 정성어린 꽃다발을 받고있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

달리는 렬차안에서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은 개성–평양행 렬차안에서 사리원 정방유치원 어린이들이 정성껏 수를 놓아 마련한 축기도 받았고 유치원어린이들의 공연도 보았으며 북의 예술인들과 함께 즐거운 오락회도 가지였다.







평양에 도착한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는 평양시민들과 예술인들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단장이 평양도착과 관련하여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10・14)



연회에서 공연을 하고있는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



연회에서 북의 예술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있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성원들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에서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10. 14)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2.8문화회관으로 향하는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

개막모임이 열릴 2.8문화회관앞에서 소고대가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성공리에 막을 올린 민족음악대축제

—7천만 겨레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소리높이 구가할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가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10. 18)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속에 범민족통일음악회 기발이 게양되였다.

범민족통일음악회가 10월 18일 2. 8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였다.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술단체들이 민족적색채가 짙은 농악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는 가운데 입장하였다.

개막모임에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재미, 재카나다, 재쏘, 재일동포 참관단성원들과 공화국북반부 예술인들, 평양시민들이 또한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윤이상선생의 개막연설이 있은 다음 장철부총리 겸 문화예술부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이어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황병기대표, 미주지역동포음악가 김동석대표, 쏘련지역동포음악가 주치명대표, 재일조선음악가대표단 최동옥단장, 재중조선음악가 최은복대표가 연설하였다.

입장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술단체들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미국동부지역조선음악가대표단





미국서부지역조선음악가대표단



미주민족문화예술인협의회 음악가대표단



재카나다조선음악가대표단





재독일조선음악가대표단



쏘련 따슈껜트도라지예술단



쏘련 까자흐스딴국립조선극장 아리랑가무단





쏘련 까자흐스딴국립조선극장 메아리음악단



쏘련 연해변강조선음악가대표단



쏘련 싸할린주고려예술단



쏘련 하바롭스크조선민족문화쎈터대표단



모스크바아쏘크음악가일행



쏘련 까자흐스딴 까라간다조선음악가일행



재중조선음악가대표단



재일조선음악가대표단



입장하는 대표단들을
열렬히 환영하고있는
개막식참가자들



평양음악단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는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서로 갈라져있으나 우리의 피속에 맥맥히 흐르고있는 민족음악의 멋진 가락이 꾹같이 흐르고있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고 훌륭한 우리 민족음악을 소중히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민족통일에 음악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수 있을것이다.



개막연설을 하는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윤이상선생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대표들



황병기대표
서울전통음악연주단

이번 통일음악회가 우리 동포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 리해하고 사랑하며 얼싸안음으로써 한시바삐 평화롭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영광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우렁찬 합창소리로 온 누리에 울려퍼지게 될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김동석대표
미주지역동포음악가

이제 우리는 합치고 화합하는 길,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통일의 노래는 모든 겨레를 하나로 묶어놓을것이다.

이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조국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고 밑거름이 되며 선구자가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



범민족통일음악회가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동포음악예술인들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 마련된 뜻깊은 민족음악축제로서 민족의 우수한 음악전통을 통일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1990년대에 기어이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7천만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더한층 북돋아주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축하연설을 하는 장철 부총리 겸 문화예술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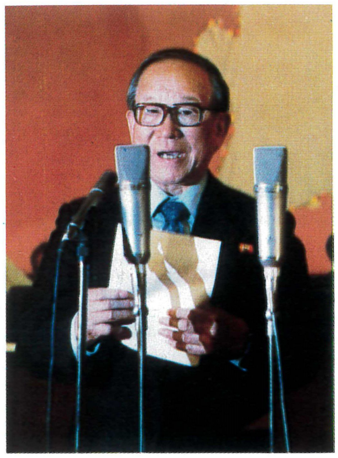


주치명대표
쏘련지역동포음악가

재쏘조선인들은 분단된 조국이 통일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해야 한다.

우리 조국은 하나이며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고야말것이다.



최동옥단장
재일조선음악가대표단

우리 음악가들이 단결된 힘으로 이번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7천만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불씨를 더욱 뜨겁게 안겨주고 1990년대를 통일의 년대로 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최은복대표
재중조선음악가

주의주장과 신념, 신앙과 거주지역은 달라도 아름다운 선률로 통일의 문을 열어가고저 모였으니 민족앞에 지닌 우리 음악가들의 임무 자못 무겁고 자부심 또한 크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음악가들이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온 겨레앞에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것을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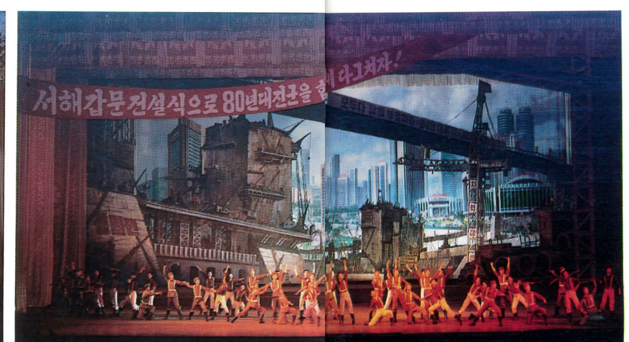
범민족통일음악회 개막모임에 참가한
예술인들과 해외동포 참관단성원들이

5,000명대공연

《행복의 노래》를 관람 (10. 18)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음악회참가자들을 위하여 10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서는 먼저 북의 예술인들이 떠온 백두산천지의 물과 남의 예술인들이 가져온 한나산 백록담물을 합수하는 의식이 있었다.

합수식에서 윤이상선생은 절절한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의 기상을 안고 장엄하게 서있는 백두산천지의 물아!

조국남단의 한나산 백록담물아!

너희들은 기나긴 세월 외세에 의하여 이 나라가 억압받고 략탈당하던 그 수난의 력사의 목격자이고 증견자이며 외세에 의해 이 나라가 동강이 났을 때 얼마나 가슴아파하고 몸부림쳤느냐.

오늘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한방울, 두방울의 물이 합쳐 그 물로 원한의 분계선을 가시고 그곳에 수목이 무성하게 하고 이 나라 강산을 적시여 부강하고 번영하게 하여라.

이 합수된 물을 우리의 정기로 삼고 우리는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바쳐가리라.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모두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아가게 하거라.》

연회참가자들은 합수된 그 물로 통일축배를 들었다.

연회에 앞서 진행된 백두산천지의 물과 한나산 백록담의 물을 합치는 합수식의 한장면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에서 음악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 (10. 18)





통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연회참가자들

축배 축배 축배를 들자 통일의 축배를
하나로 합친 물은 가를수 없다네
천지의 맑은 물과 백록담의 맑은 물을
한잔에 부어 함께 드니 마음도 하나일세

노래 《통일축배가》중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 제1차회의가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였다.(10·17)

통일을 부르는 북과 남, 해외 동포 예술인들의 공연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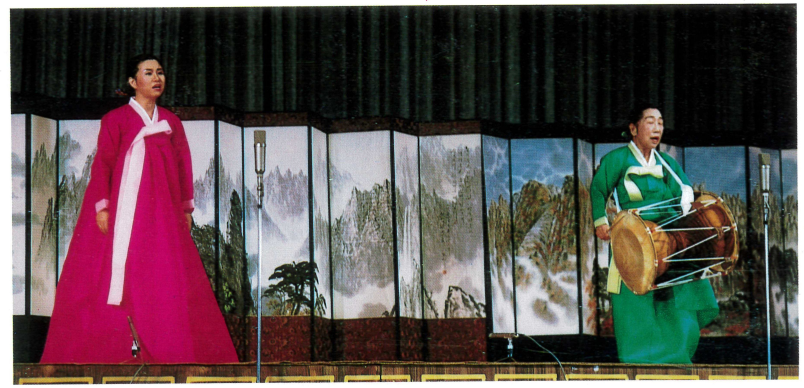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공연



가야금독주 《비단길》 (황병기)



판소리 《심청가》중에서 《부녀상봉》 (오정숙)



서도민요독창 《엮음 수심가》 (오복녀, 김광숙)



사물놀이



창작가곡 《우리는 하나》 (윤인숙)



휘모리시조 《창 내고자 창 내고자》 (김월화)



공연을 마친 예술인들은 무대에 오른 관람자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목청껏 합창하였다.

미국동부지역조선음



녀성독창 《우러러따르는 한마음》
(리숙자)



남성독창 《압록강 2천리》 (최상균)



녀성독창 《심산속에 피는 꽃》
(리혜수)



합창 《새야새야 파랑새야》

악가대표단의 공연



남성독창 《나라를 지키려는 장부의 마음》 (서병선)



녀성독창 《문경고개》 (배정숙)



훌류트독주 《노을비낀 바다가》 (김성혜)



녀성독창 《도라지》 (김정현)



녀성독창 《나는 알았네》 (조공자)

미국서부지역조선음



지휘자 곽 승
(교향곡 《피바다》지휘)



첼로독주 《노을비낀 바다가》 (리방은)



녀성독창 《봉선화》 (리정재)



남성독창 《하나의 조국》 (김운하)



거문고독주 《산조》 (김영욱)

악가대표단의 공연

아름다운 내조국 슬기로운 내 민족
온 세계에 떨치리라 통일된 자랑을
내 조국 하나라고 힘차게 웨치리라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자

노래 《아름다운 내 조국 통일을 이루자》중에서



녀성독창 《아름다운 내 조국 통일을 이룩하자》 (리동희)



녀성독창 《우리의 길은 하나다》 (양경자)



남성독창 《백두산은 혁명의 고향》 (조규함)

기악합주 《천년 만세》



미주민족문화예술인협의회 음악가대표단의 공연



혼성제창 《하나의 열망》

우리 함께 행복누릴 나라도 하나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자주통일 한길따라 손잡고 나가자
아, 간절한 간절한 열망이루자

노래 《하나의 열망》중에서



혼성5중창 《통일자장가》

남성 3 중창 《조국통일》





녀성독창 《직녀에게》 (리길주)



녀성독창과 남성중창 《우리가 만나면》

남성독창과 방창 《바람》



재카나다조선음악가대표단의 공연



피아노독주 《조선은 하나다》 (전인성)



녀성독창 《고향의 밤》 (강혜경)

쏘련 까자흐스딴국립조선극장 아리랑가무단의 공연



혼성5중창 《우리는 하나의 민족》



녀성독창 《창부타령》 (김조야)



남성독창 《내고향》 (조군하)

쏘련 따슈껜트도라



녀성독창 《이제는 만나자》 (신 갈리나)



녀성독창 《닐리리》 (강 스베따)

멀어서 못가는 남의 땅인가
낯설어 못만날 얼굴들인가
걸어서 하루길 내 땅 내 사람인데
어이하여 그리움 안고 몸부림치느냐
이제는 만나자 어서 만나자
어서 어서 어서

노래 《이제는 만나자》중에서



바이올린독주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김 알라)



남성독창 《조선은 하나다》 (김 가부릴)

지예술단의 공연



합창과 무용 《우리의 소원》

쏘련 연해변강조선음악가대표단의 공연

바이올린독주 《고향길》 (강 엘레나)



피아노독주 《내 고향의 정든 집》 (차 엘레나)



쏘련 싸할린주고려예술단의 공연



녀성독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윤민자)



남성독창 《사랑의 별》 (백수경)



녀성독창 《얼씨구나 절씨구 만풍년일세》
(김춘경)

쏘련 하바롭스크 조선민족문화쎈터대표단의 공연





남성독창 《떨어져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 (리상호)

⇦녀성2중창 《생의 흔적》 (최미분, 정경자)



소합창 《아리랑》

쏘련 까자흐스딴국립조선



혼성3중창 《보고싶은 조국산천》

모스크바아쏘크 음악가일행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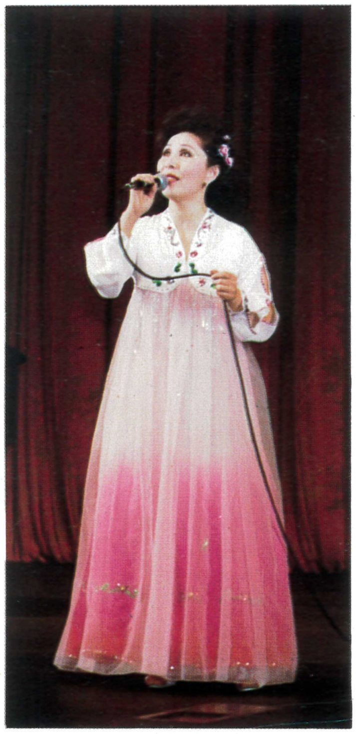


녀성독창 《그 누가 라는가 손풍금소리》 (김 인나)

극장 메아리음악단의 공연



남성독창 《통일의 봄노래》
(송 게오르기)



녀성독창 《새타령》
(문공자)

재독일조선음악가대표단의 공연



거문고독주 《산조》 (윤경순)

재중조선음악가 대표단의 공연



녀성독창 《심장에 남는 사람》 (박춘연)



북제창 《통일의 북소리 높이 울려라》



녀성민요독창 《천하절승 묘향산》 (박영애)

우리는 통일위해 싸워나간다
콩크리트장벽은 분렬의 상징
콩크리트장벽은 민족의 수치
하루빨리 분단장벽 무너뜨리고
통일의 큰 대문을 열어제끼자

노래 《분단의 장벽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열자》중에서



녀성독창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리순옥)

소합창 《분단의 장벽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열자》



재일조선음악가



혼성중창 《삼천리금수강산 하나로 잇자》



남성민요독창 《아리랑》 (인민배우 엄국지)

바이올린독주 《고향길》 (정성녀)



대표단의 공연



녀성고음독창 《고향의 봄》
(인민배우 홍령월)



녀성민요독창 《모란봉》
(김명숙)



남성고음독창 《조국으로 가는 길》
(인민배우 진례훈)



녀성민요독창 《물레타령》
(렴민화)

만나자 만나자 모두 만나자
어째서 남의 손에 아픔을 겪느냐
하나로 굳게 뭉쳐 우리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 한품에 살자
조선은 오직 하나 통일된 조국
삼천리금수강산 하나로 잇자

노래 《삼천리금수강산 하나로 잇자》중에서



손풍금독주 《통일렬차 달린다》
(윤한신)



녀성4중창 《희망의 길》

평양음악단



합창 《모란봉》



녀성5중창 《날리리와 옹헤야》



녀성독창과 중창 《룡강기나리》

의 공연



녀성독창 《아 내 조국》 (인민배우 최삼숙)



남성독창 《내 나라》 (국제콩클수상자, 공훈배우 김진국)



합창 《법성포 배노래》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술



합창 《아리랑》 해외동포예술인, 평양음악단



혼성제창 《하나의 열망》 미주민족문화예술인협의회, 평양음악단

인들의 합동공연중에서



교향곡 《피바다》

평양음악단
지휘: 미국서부지역조선음악가대표단
곽 승





녀성중창 《고향의 봄》 해외동포예술인, 평양음악단



기악중주 《삼지연의 새벽길》

미국서부지역조선음악가대표단 리방은,
평양음악단 리민섭 (남매)



민요합주 《민요련곡》 미국서부지역조선음악가대표단



합창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해외동포예술인,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평양음악단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성동춘부위원장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로동은대표



미국동부지역조선음악가 대표단 리준무대표



평양음악무용대학 리차윤교원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동포 음악예술인들이 10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민족음악과 조국통일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 김원균위원장의 개회사가 있은 다음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민족음악을 참답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선음악가들의 깨끗한 량심이며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하면서 갈라진 민족음악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동포음악가들이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민족음악을 하나의 통일된 음악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민족음악과 조국통일토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10. 21)





쏘련 싸할린주고려예술단
리소현대표



재중조선음악가대표단
남윤명대표



미국서부지역조선음악가
대표단 김동석대표



평양음악무용대학
전우봉학부장

민족음악과 조국통일토론회 진행



토론회 의장석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인민문화궁전을 나서는 대표들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민 족 음 악 대 축 제

—범민족통일음악회 페막—



범민족통일음악회가 페막되였다. (10 . 23)



온 겨레와 세계문화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련일 대성황리에 공연의 막을 올렸던 범민족통일음악회가 23일 성과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2.8문화회관에서 페막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북측 대표 정봉석,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병기, 해외동포 대표 리준무의 토론이 있었다.

이어 모임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속에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의 결의문과 해내외동포음악예술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모임에서는 윤이상선생이 페막연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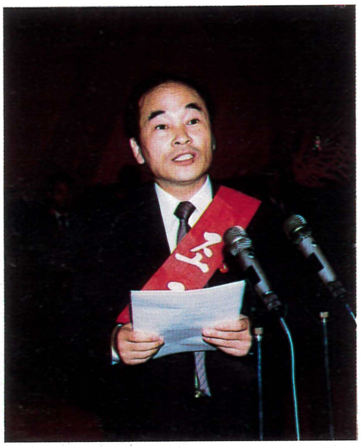
페막모임에서
연설하는 대표들



북측 대표 정봉석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병기



해외동포 대표 리준무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의
결 의 문

민족통일을 희망하는 조국의 두 지역 음악인들과 해외동포음악인들은 조국분단 45년이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를 가지였다.

이번 음악회는 민족음악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해내외동포음악가들의 첫 회합이였으며 애국적인 음악예술인들의 통일 의지와 열망을 내외에 과시한 통일애국음악운동의 새로운 출발이였다.

뜻깊은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민족음악이 매우 큰 힘을 가지고있음을 뜨겁게 절감하였으며 이런 기회를 자주 얻는다면 음악예술이 민족분렬의 설음을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경험하였다.

우리들은 범민족통일음악회의 성과를 더욱 살려 우리의 민족음악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할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우리들은 민족음악의 우수한 전통을 살리고 그의 통일적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조국의 두 지역 음악인들과 해외동포음악가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음악창작과 공연활동을 공동으로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셋째; 우리들은 해내외동포음악가들의 만남의 무대, 통일노래의 무대인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힘쓸것이다.

우리는 현시대의 음악예술인으로서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길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바쳐나갈것을 나라와 민족 앞에 엄숙히 확약하며 아울러 우리의 결의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온 겨레의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기원하는바이다.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일동
1990년 10월 23일 평 양

해내외동포음악예술인들에게 보내는

호 소 문

해내외동포음악예술인들!

분단조국의 량쪽 음악인들과 해외동포음악인들은 평양에 모여 우리 민족음악예술의 통일적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열어놓게 될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를 가지였다.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범민족통일음악회에서는 해내외동포음악예술인들의 뜨거운 혈육의 정이 흘러넘치는 동포애의 분위기속에서 분단이후 민족음악의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과 성과들을 나누었다.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는 국토분단 45년간의 민족적비극속에서도 민족음악예술의 우수한 전통이 고수되고 민족의 얼이 피속에 맥맥히 흐르고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감격적화폭으로 펼쳐진 이번 범민족통일음악회를 통하여 우리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안고 더는 살수 없는 하나의 몸체, 하나의 혈육임을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시대와 력사는 온 겨레를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우리 민족음악인들이 분단의 비극에 몸부림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한숨만 짓고있다면 어찌 민족의 넋을 가진 애국자, 진정한 조국의 음악예술인이라고 하겠는가.

참된 애국자, 진정한 민족의 음악예술인이라면 응당 분단의 치욕을 씻는 성스러운 통일애국의 길에 떨쳐나서야 한다.

수천년을 내려오며 우리 선조들이 슬기와 재능으로 가꾸어온 민족음악의 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있고 그것은 오늘 온 겨레를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위업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음악의 우수한 전통을 살리며 통일적으로 계승발전시키자!

우리 조국과 민족은 하나이며 우리의 민족음악도 하나이다.

음악예술인들은 우리의 귀중한 전통적음악유산들을 공동으로 발굴수집정리하며 그것을 하나로 합쳐 보존연구하고 통일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자!

조국통일은 온 겨레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해내외동포음악가들은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과감히 합류하자!

음악인들은 음악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

음악예술인들은 민족자주의 노래, 평화의 노래, 민족대단결의 노래를 더 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온 겨레가 불타는 통일열망을 안고 조국통일성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조국의 두 지역과 해외동포들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를 활발히 벌릴것을 요구한다.

음악예술인들은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자주적인 민간대화와 협력교류를 더 활발히 벌려나가자!

조국통일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애국의 뜻을 가진 모든 동포음악인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대단결을 이룩하자!

1990년대는 7천만 우리 겨레가 통일조국을 안아올 희망의 년대, 영광의 년대이다.

모든 동포음악가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통일된 우리 조국 만세!

범민족통일음악회

1990년 10월 23일 평 양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이

조국통일대행진 진행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성과적으로 마친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술인들은 23일 평양에서 조국통일대행진을 진행하였다.

2.8문화회관앞 광장을 출발한 행진대는 연도에 떨쳐나선 10여만명의 평양시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개선문을 향하여 힘찬 행진을 다그쳐나갔다.

행진대는 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 확고한 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국통일대행진대가 2.8문화회관앞 광장에서 출발하였다. (10.23)





통일의 열망드높이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가는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술인들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행진대오



재쏘조선인대표단의 행진대오



재중조선음악가대표단의 행진대오



미국동부지역조선음악가대표단의 행진대오



미국서부지역조선음악가대표단의 행진대오

행진대오가 가는길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들









재일조선음악가대표단의 행진대오

⇨ 행진대성원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이 **김일성**경기장에서
평양시내 5만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 《**일심단결**》을 관람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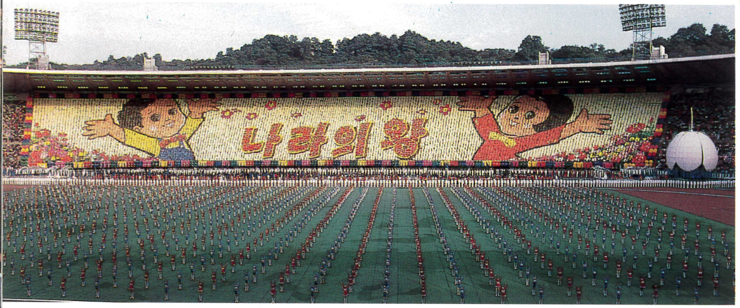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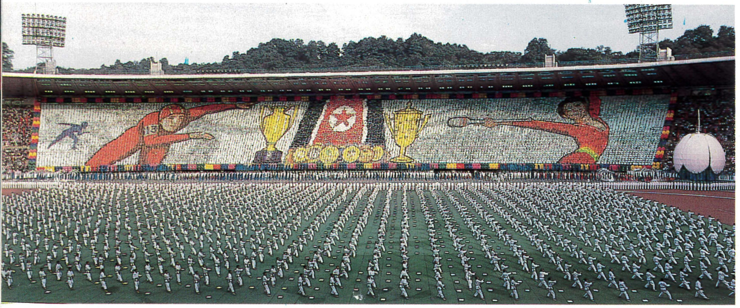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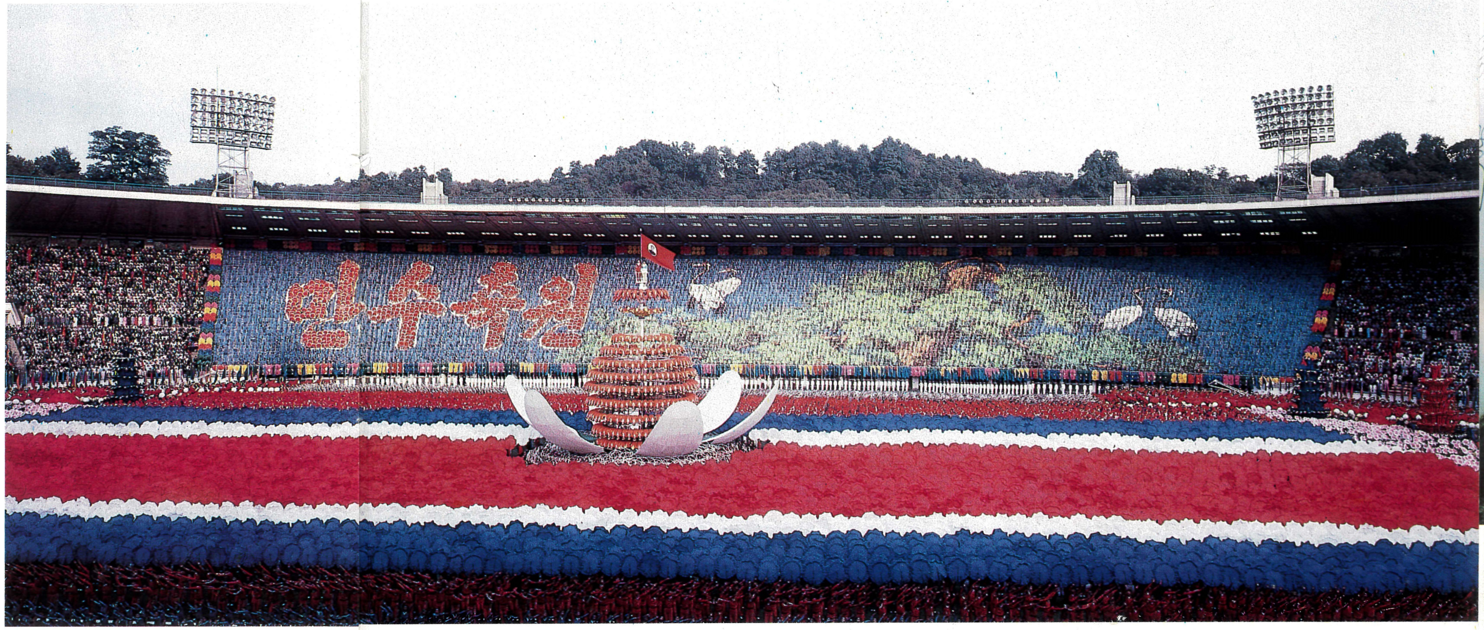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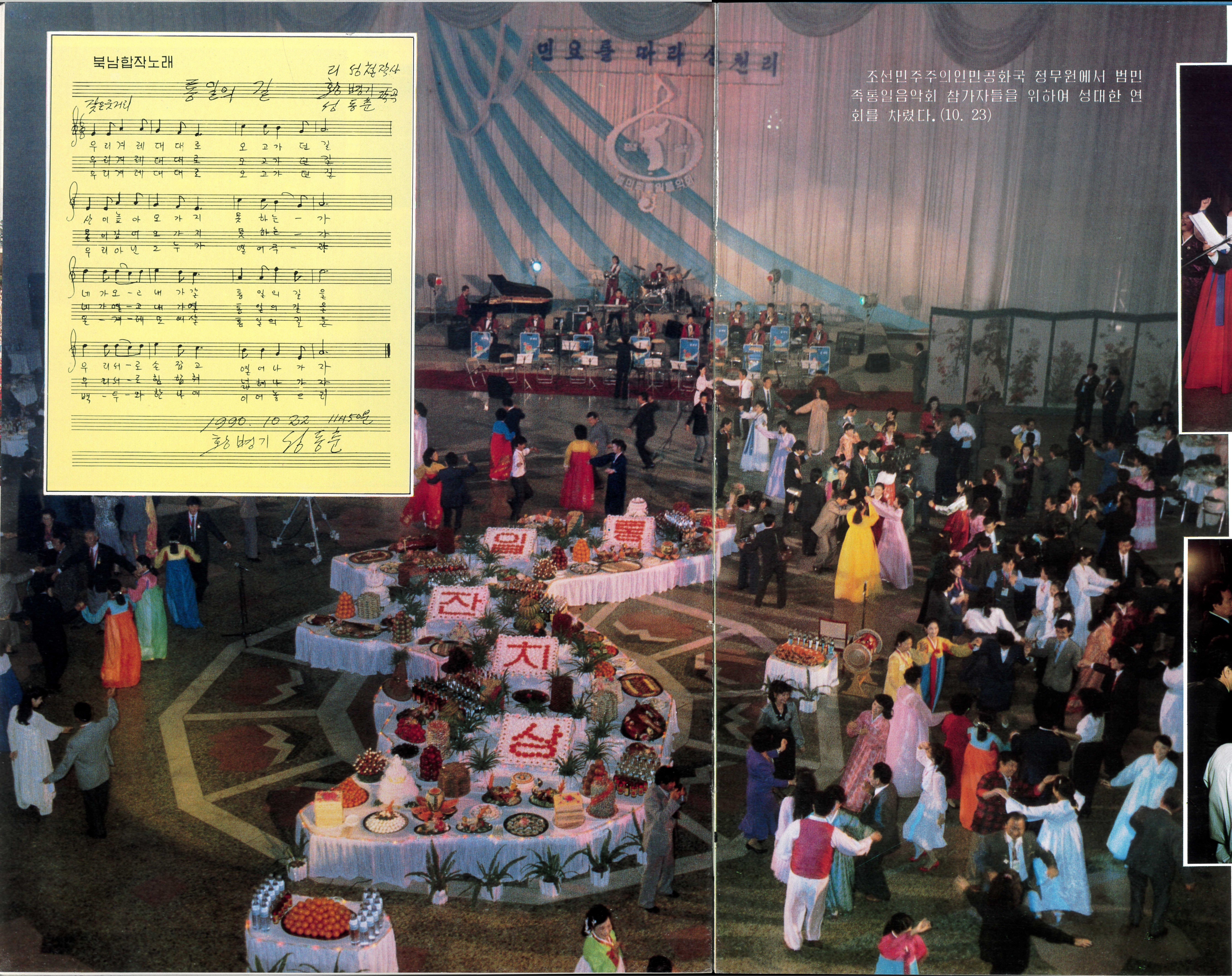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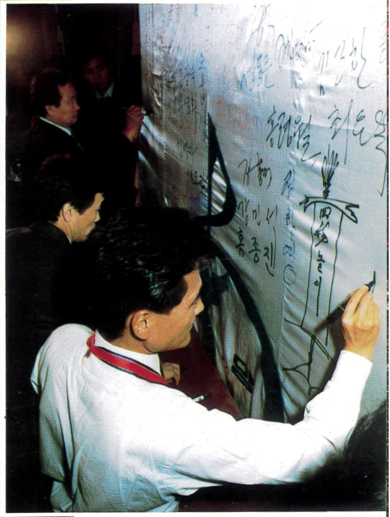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10. 23)



연회장에서 북과 남이 합작한 노래 《통일의 길》을 함께 부르는 북측 예술인과 남측 예술인들



연회장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 기발에 기념수표를 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술인들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이 예술공연을 관람



공연을 관람하고있는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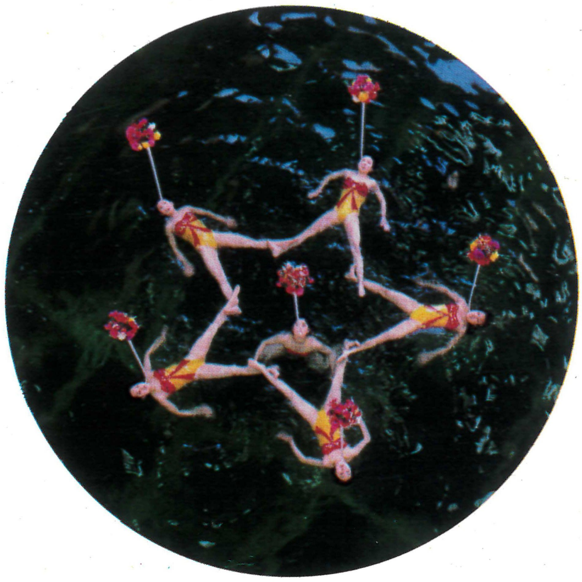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






혁명연극 《3인1당》공연을 관람

교예공연을 관람



공연이 끝나자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은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였다.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만경대옛집을 방문





주체사상탑을 참관



개선문을 참관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참관


5월1일경기장을 참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



조선민속박물관을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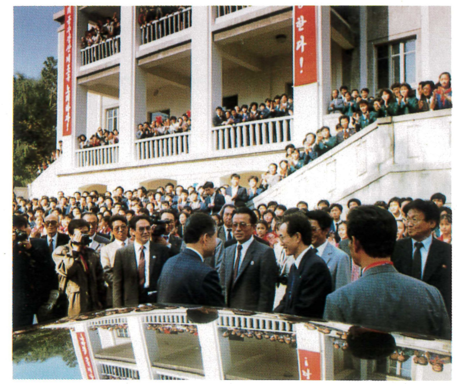
평양산원을 참관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참관



만수대창작사를 참관



서해갑문을 참관



만경대유희장을 참관



평양지하철도를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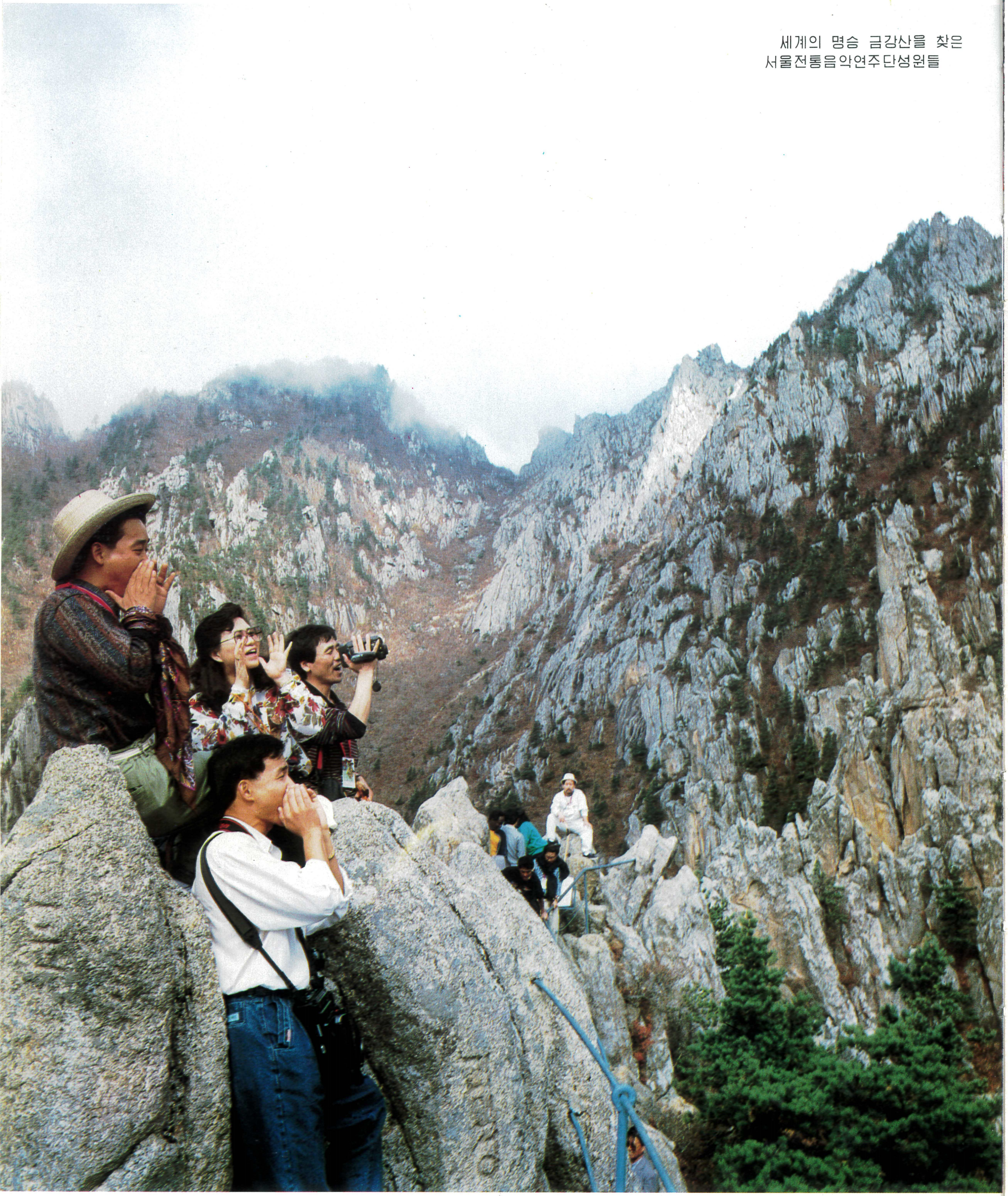
조선력사박물관을 참관



판문점을 참관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자들이 금강산, 묘향산, 모란봉을 유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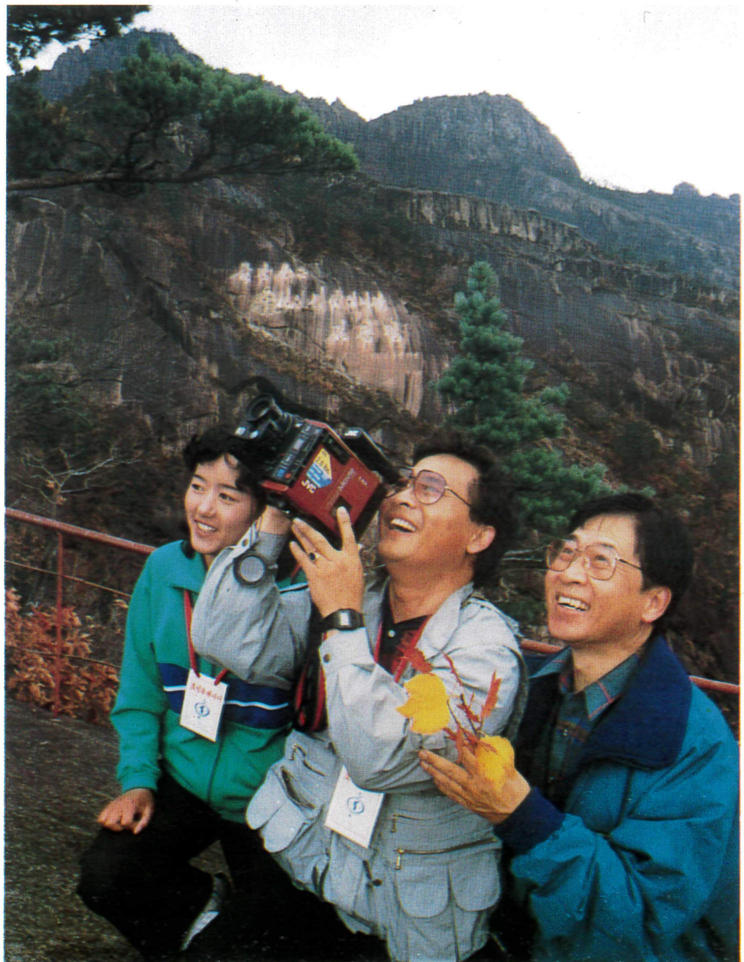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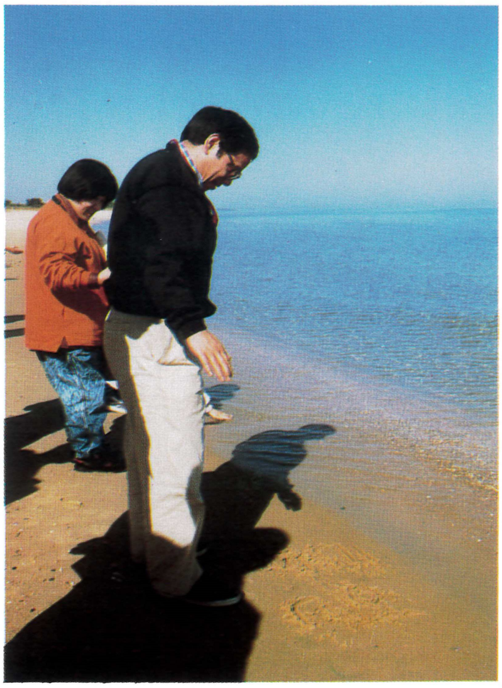
세계의 명승 금강산을 찾은
서울전통음악연주단성원들



금강산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해외동포예술인들



금강산의 일만경치를 그냥 두고 갈수 없어…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동해의 백사장에 뜻깊은 《통일》의 글발을 남기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성원들)



묘향산을 찾은 해외동포 참관단성원들



서울전통음악연주단 성원들과 해외동포 참관단성원들이
모란봉에 올라 평양시를 부감하였다.

혈육의 정 넘치는 생일상



뜻깊은 생일상을 받은 김경희기자



혈육의 정 넘치는 생일상을 받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홍종진대표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진행되던 10월 19일 서울전통음악연주단과 함께 온 김경희기자는 평양고려호텔에서 혈육의 정이 넘치는 생일상을 받았다.

뜻깊은 생일상을 받아안은 기자는 고마움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우기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을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여 다음생일을 모두 함께 지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자,
통일의 광장에서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을 열렬히 환송



개성시민들과 북의 예술인들이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예술인들과 함께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을 뜨겁게 환송하였다. (10. 24)



개성역에서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는 황병기대표



《잘 가시라, 우리 다시 만나자. 통일의 광장에서》



떠나는 마음도 눈물에 젖어



판문점에서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일행을 뜨겁게
바래워주는 북의 예술인들과 개성시민들

혈육들의 뜨거운 상봉



헤여졌던 4촌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홍인숙재미교포 (가운데)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해외동포 예술단, 참관단성원들이 조국의 가족친척들과 뜨거운 눈물속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피를 나눈 혈육들의 상봉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하나된 통일조국에서 살려는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더욱 높여주었다.



김선숙재미교포가 40년만에 딸, 동생과 만났다.



40년만에 누이동생과 만난 임영순재카나다교포 (오른쪽)



헤여졌던 딸을 부등켜안고 오열하는
김여철재카나다교포 (오른쪽)



40년만에 녀동생과 만난 길상운재미교포 (오른쪽)



40년만에 형님과 상봉하는 김영우재미교포
(오른쪽에서 두번째)



겨레여, 통일의 노래 높이 부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1.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2. 우리의 소원은 자주
꿈에도 소원은 자주
이 목숨 바쳐서 자주
자주를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자주
이 나라 살리는 자주
자주여 어서 오라
자주를 이루자

3. 우리의 소원은 민주
꿈에도 소원은 민주
이 목숨 바쳐서 민주
민주를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민주
이 나라 살리는 민주
민주여 어서 오라
민주를 이루자


환 영
범민족통일음악회
평 양
범민족통일음악회
삼천리 금수강산 내조국 노래하자
평 양
범민족통일음악회

범민족통일음악회

발행소: 평양등대사

사서함: 조선·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값 15원